

## ‘아리랑 예술단’: 키치적 리얼리즘과 행위 주체성

임지현(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소장)

이동근의 카메라가 잡은 삶의 풍경은 키치적일 때가 많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찍은 ‘초청장’ 연작 사진을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한국인 시어머니와 베트남 이주여성 모자, 분홍색 요 위에 놓인 잘 차린 호마이카 밥상 앞에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는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신부, 베트남 본국에 있는 친정집 벽면의 어지럽게 알록달록한 충천연색의 장식을 배경으로 한 친정 부모, 이국적인 그림의 블라인드 앞에서 어색하게 포즈를 취한 몽골 신부와 한국인 남편의 엇갈린 시선 등은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이동근의 세계관을 넉넉히 드러낸다. 그는 ‘삶’과 ‘삶 비슷한 것’ 사이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의 세계에 렌즈를 들이댄다.

카메라를 외면하는 한국인 남편들의 시선에서 보듯이 이동근의 카메라는 소수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공격적으로 애정을 펼친다. 공격적 애정이 듬뿍 담긴 이동근의 렌즈를 통과하면, 이상하게도 키치는 더 이상 키치이기를 그치고 신산한 삶의 리얼리즘이 된다. 문화적 차이와 언밸런스가 만들어낸 키치적 일상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애써 찍어 누르고 있는 그의 ‘초청장’ 연작 사진들에 빠져들다 보면, 일상의 키치적 리얼리즘이 이념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보다 더 리얼하다는 걸 잘 알게 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리랑 예술단’의 사진들을 보면, 이동근 표 키치적 리얼리즘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리랑 가극단’의 탈북이주여성들은 ‘초청장’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보다 더 키치적이다. ‘삶’과 ‘삶 비슷한 것’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청장’과 ‘아리랑 예술단’의 연작 사진들은 서로 닮았다. 두 연작 사진들은 디아스포라 소수자를 차별적으로 포섭하여 지배하려는 권력의 의도에 맞서 그에 영합하고 편승하거나 저항하면서 세상을 전유해 온 소수자들의 신산한 삶의 단면을 키치적 리얼리즘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랑 예술단’의 사진들은 ‘초청장’의 사진들과 닮았으면서도 또 다르다. 그 차이는 탈북이주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사적 의미가 국제결혼이주성과 다른 데서 비롯된다. 말과 문화, 역사와 혈통이 같은 동족이라는 번드르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탈북이주여성은 이중의 차별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여타 외국인 이주민 소수자들과 더불어 포섭과 동화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홍보하는 발화자의 역할까지 기대되었다.<sup>1)</sup>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북한 생활과 탈북 체험을 털어놓는 탈북이주여성들의 수다는 ‘극장국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기획이었다.

‘아리랑 예술단’의 사진들이 ‘초청장’의 사진들보다 더 키치적인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리랑 예술단’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이주여성들은 남한 관객들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키치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아리랑 가극단’의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춤과 노래, 만담과 연주를 키치적으로 꾸미면 꾸밀수록 남한 관객들의 관음증적 기대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은 영리한 행위자들이다. 북한 문화를 키치화하는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힌 남한 관객들과 자신의 생계와 네트워크를 위해 남한인들의 도착된 키치적 욕망을

1) 신난희, “탈북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Diaspora)와 행위성에 관한 성찰,” 『한국학연구』, 65집, 183쪽.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리랑 가극단'의 단원들 중 어느 편이 더 키치적인가는 한번 따져 볼 일이다.

큼직한 꽃무늬가 선명하게 프린트된 원피스와 유행이 지난 조화, 금박 은박 실이 번쩍이는 드레스, 진분홍과 코발트 색의 화려하기 짝이 없는 싸구려 한복과 장식이 넘치는 족두리, 무궁화를 크게 수놓은 흰 천을 가슴에 덧댄 청색 원피스와 엇박자의 짝퉁 파나마모자, 카메라 앞에서 짐짓 포즈를 취할 때마다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만드는 '사랑해' 표식, 과장이 느껴지는 진한 얼굴 화장 등 이동근의 렌즈에 포착된 '아리랑 예술단'은 '키치'의 원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검은 운동복을 입고 대기실의 난로에 몸을 녹이고, 하얀 블라우스와 미니 스커트에 캐리어를 끌고 숙소로 찾아오거나 바바리코트를 입고 미니버스에 오르려는 단원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키치는 없다. '아리랑 가극단'의 키치가 남한 관객들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음증을 노린 무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동근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키치는 '아리랑 예술단'의 탈북이주여성들이 아니라 남한의 주최 측이나 객석에 앉은 관객들의 몫이다. '아리랑 예술단'이 공연하는 무대 정면에 걸려 있는 '사단법인 XX도 방범연합회'라는 큼직한 배너, '6.25 참전 국가유공자'라고 수 놓인 조끼에 훈장과 표창을 주렁주렁 달고 일제히 흰 야구모자를 쓰고 일사불란하게 앉아서 엄숙하게 공연을 지켜보는 어르신들,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풀어쓴 'XX 수박 축제' 등의 배너가 걸린 시골 무대, 시골의 장마당처럼 보이는 마당에서 묘한 스타일의 한복 비슷한 옷을 차려입고 공연하는 단원들과 합세해 덩실덩실 춤추는 아낙네들 사진을 보노라면, '아리랑 예술단'의 키치는 남한 관객들의 키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무대 전략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키치적 리얼리즘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다.

'아리랑 예술단'의 키치적 무대 전략은 북한 체제를 희화화한다. 남북이 공유하는 민요와 더불어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의 대중가요가 이들의 단골 레퍼토리인데, 일차적으로 그것은 남한 관객들의 오리엔탈리즘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편이다. 그러나 북한 노래 레퍼토리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북한 문화를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독특한 창법으로 북한 대중가요를 부를 줄 안다는 것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아리랑 예술단' 고유의 문화적 자산인 것이다.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 문화에 대한 현실의 요구가 북한에서 겪은 굶주림과 폭력, 가족의 죽음 등 트라우마적 기억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실에서 멋진 포즈로 셀카를 찍는 단원들 사진에서 보듯이, '아리랑 예술단'의 탈북이주여성들은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도 남한의 비정한 자본주의도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도 이들을 수동적 희생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아리랑 예술단'의 키치는 남한 관객들의 키치 욕망에 대한 야유 조의 답변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무대에서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식이다. 무대에서의 키치화 전략은 남한의 지배 헤게모니에 종속되는 듯한 외양을 취하면서, 역으로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남한의 지배 문화를 키치화하는 영리하고 주체적인 문화적 전략이다. 이 지점에서 이동근의 피사체들은 피사체이기를 멈추고, 이동근의 카메라와 렌즈를 활용하는 역사적 행위자들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 관객의 오리엔탈리즘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북한 문화를 희화화시키는 무대 전략은 '아리랑 예술단'의 단원들을 북한의 지배 헤게모니로부터 해방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아리랑 예술단'의 탈북이주여성들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틈새를 찾아내서 자신의 행위 주체성을 확보하고 행사한다. 몇몇 단원들의 증언에서 보듯이, 탈북이주여성들이 남한의 대북 오리엔탈리즘이나 북한의 주체사상이 강제하는 지배 헤게모니를 벗어나 행위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원거리 모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북에 두고 온 자식을 '부양'하고 중국에는 남한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원거리 모성’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 연결망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sup>2)</sup>

국경을 넘는 이주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들의 복합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탈북이주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은 일국적 경계에 갇히지 않고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한 삶과 역사 공간에서 실현된다. ‘아리랑 예술단’에 대한 이동근의 키치적 리얼리즘에서 북한-중국-동남아-한국을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한 앵글이 드러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의 ‘초청장’ 연작 사진들을 통해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을 자신의 카메라에 장착했던 것도 큰 힘이 됐을 것이다. 탈북이주여성들을 가식적인 동포의 수사학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맥락에서 이동근의 사진들을 해석하면, 관객들도 키치적 리얼리즘의 풍요로움을 한층 더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

2) 김성경,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 『문화와 사회』, 23집, 265쪽.